



이제는 '문화법회' 다

5월 2일 오후 봄비가 내리는 양산 통도사내 서운암을 지나다 봄꽃축제 플래카드를 보고 차를 멈춘다. 축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오솔길 따라 울타리에 붙어있는 봄꽃 사진과 꽃말들이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다. 봄비가 오는데도, 법회를 하지 않는 데도 불자들이 오솔길과 사찰을 거닐고 있었다.

혁명과 주5일근무의 확산으로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국민도 늘어나 이제는 '문화법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맞아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간접교묘의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템플스테이가 현재는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상설기구로 자리잡았다.

정부에서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종단에서는 사업인프라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외국기업연수, 대학생 심성개발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법회'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사찰은 진행 가능한 다양한 문화법회 형식이 있다. 어린이 법회에서는 부처님그리기, 청소년 법회에서는 무용, 찬불가, 불교영화감상, 도자기공예 등이 있



다. 또 사찰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찾는 다양한 답사여행, 형식의 예배나 미사를 준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성경을 사경할 수 있는 책자도 나와 있다. 사경은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데 타 종교에서 따라잡기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관심거리를 만들어 신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심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법회가 고전적인 방식에 의존해 진행되다보니 설법 잘하고 재미있다는 사찰로 불자들이 몰려다니는 경우도 생긴다. 인터넷

인터넷·주5일근무 여가문화 바뀌 절마다 특화된 '트레이드마크' 갖자

전 주교도 49%에서 작년에는 47%로 5년 만에 2% 정도 줄었다. 전체 종교인구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각 종교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종교인구 중 불자는 1999년 49%에서 작년에는 47%로 5년 만에 2% 정도 줄었다. 전체 종교인구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각 종교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사음악회, 사찰 소재 그림전시회, 산사음식과 발우공양, 시 낭송회, 참선 등 해야할 수 없이 많다. 가령 '나주 배' 지방특산물이 있듯이 지리산 ○○사 하면 녹차를 즐기는 곳, 도심의 ○○사 하면 시낭송으로 유명한 곳 등 트레이드마크가 생겨야 한다.

특히 지역사찰의 '문화법회' 마인드를 가진 스님과 경험을 갖춘 불교문화계인사가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법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 황재남(조계종 포교사단 중앙운영위원)

'다르마'와 '달마' 뭐가 맞나요?

학술단체련, 학술용어정비사업 내년 10월 마무리

한국불교학회, 불교용어 5천여자 '통일' 작업

니르바나와 너바나, 다르마와 달마 등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불교용어가 하나로 통일된다.

한국학술단체연합회(회장 송희성·이하 학단연)는 '학술용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 까지 철학용어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불교용어의 경우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교재와 대학교재, 전문영역 등에서 뜻은 같으나 다르게 사용되는 학술 용어를 학자들 간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다. 각 학문별로 연구된 내용을 공유하고, 학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학술 용어에 대한 약속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불교용어 표준화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와 새로 번역된 용어가 의미는 같으나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경우와 중국이나 일본식 번역으로 우리말과 어감이 동떨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원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해 혼란되는 용어와 적절한 우리말을 찾지 못해 원어발음 그대로 사용되는 언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팔리어와 팔리어의 경우,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 어느 용어를 검색어로 사용해야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은 각각의 단어 모두 검색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데, 용어를 표준화하면 이 같은 이중고를 피할 수 있다.

이번에 표준화하는 철학 용어

는 1만여 자로 불교학 용어 3천~5천여 자와 동양철학 용어 1천5백여 자, 서양철학용어 5천여 자가 포함돼 있다. 불교학은 한국불교학회, 유학은 한국공자학회, 서양고대철학은 한국서양고전학회에서 주도하며, 철학 각 분야별로 12개 학회가 표준화사업에 참여한다.

불교학 용어 정비는 5월 14일 열린 제1차 연구위원회의에서 표준화할 불교학용어 선정과 작업 방법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 학자들이 불교학 용어를 표준화하고, 7월초 열리는 워크숍에서 학자들 사이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순까지 '불교학용어집'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관련은 학자들 간

의 의견조율과 예산 문제 해결에 있다.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용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단연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표(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학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단연이 학술진흥재단에서 받은 예산이 2천 6백만원에 불과해, 각 분야별로 배정된 예산은 회의 진행비용 20만원뿐이다. 이에 대해 이평래 교수는 "철학용어 표준화사업에서 불교학만 빠져 학술 논문 작성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는 없다"며 "이는 불교학 발전을 위한 작업인 만큼 불교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교용어표준화 연구위원회에서는 종단협동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 해인사, 17일 대적광전서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이 5월 17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봉정식은 760년 전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의미를 되살리는 취지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 불교계 중진스님들과 문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 정관계 인사, 어린이, 청년 등 각 계층 인사와 계층별 대표자들이 헌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봉정하게 되는 동판 팔만대장경 최종 완성본은 보존성이 가장 우수한 '인청동 3' 재질로 제작됐으며, 동판 두께 1.3mm에 경판 크기는 695×239.5mm다. 서체는 고려대장경에 사용된 다양하고 어려운 이자체를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 누구나 알아보고 싶은 정자로 바꾼 '고려대장경연구소 제작 폰트체 정자본'이 사용됐으며, 목판의 심미감을 최대한 살리고 금속의 장점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한병우 기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관계자들이 5월 3일 북한 용천담기 지원 물품을 보내고 있다.

절마다 청소년 가장과 손잡아 조계종, 1사찰 1가정 결연사업 전개

조계종이 소년소녀 가장과의 인연 맺기를 통해 맑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조계종은 '소년소녀 가장 1사찰 1가정 결연사업' 계획을 5월 6일 밝혔다. 조계종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기존 결연후원 현황 조사 실시 및 결연 대상 사찰과 소년소녀 가장 수요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사찰과 소년소녀 가장과 결연을 맺어주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각 지역의 청소년복지사의 정기 상담과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특히 이 사업을 단순한 생활비 보조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찰 주지스님 및 신도들의 부모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사찰 초청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청 관할 소년소녀 가장 30여명을 추천받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결연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 직능직 2명 6월11일

조계종 13대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가 6월 11일 오후 2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5월 7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 총회의원 청화(교육)·도공(행정) 스님이 교육원장과 보은 법주사 주지로 선출됨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입후보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남동우 기자

한국 JTS, 北 용천참사 2차 지원...의류 1만1천점

북한 용천역 참사 긴급 지원을 위해 각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JTS이 사장 법륜은 "용천 담기 2차 지원물품인 의류 1만 1천여 점을 4월 29일 인천항에서 선적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한국JTS는 "북한에서 긴급 요청한 밀가루 200톤도 5월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JTS는 4월 26일 이북, 의약품 등 1차 지원분을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총 2억 4천여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한국JTS 유희원 간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캠페인 및 거리모임을 진행해 총 1천여만 원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용천역 참사 지원을 위해 5월 3일 라면, 밀가루 등 2천 6백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 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부처님 오신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299일 지혜의 등불 299연등 소요비용을 북한 용천역 폭발사건 구호 성금으로 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드리는 299일 지혜의 등불 밝히기 봉행

우리절에서는 오는 5월 26일부터 2005년 3월 21일까지 299일 동안 관음전에 자비를 들어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위해 연등을 달고 불을 밝힙니다. 정당·종교·지역·정책·사상 등을 뛰어넘어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연으로 국민들로부터 언제나 칭송받는 그런 입법위원들이 되십시오.

참고자료

생전에수계를 봉행할 때 명부세계 열 분의 심대왕을 비롯하여 사자들과 권속 등 모두 299분의 신위를 모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겁 뒤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깨닫고 세 번의 대법회를 열어 모두 299억의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셨습니다. 이 299분의 신위와 299억의 제도중생의 수는 비묘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와 맞아떨어집니다.



일원국 9 지장경

짓고손이: 교불교조
옮겨손이: 지암일원
요모조모: 등불정주

① 우리절에 오시면 무료로 보시해 드립니다.